

“이익환수 등 고통분담 하자” 정치권 압박에 정유사 ‘난감’

민주당, 초과이익환수 등 언급 정유사 “고유가 주범 묘사 당혹” 탈탄소 포트폴리오 마련 벽차 산업계, 민생 안정 공약 ‘우려’

고유가 기조가 세계적으로 꺾이지 않고 유가 급등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정치권에서 고유가를 잡기 위한 방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산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태업’ 중인 국회가 공염불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2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3.18원 오른 L(리터)당 2119.53원, 경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4.69원 오른 2132.27원을 기록해 여전히 고유가 상태를 지속했다.

고유가를 잡기 위해 국민의힘은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세, 부가세에 해당하는 교육세(15%), 주행세(21%), 여기에 추가되는 부가차세(10%) 등으로 구성된다. 류성걸 물가특위 위원장은 서병수 의원이 발의한 유류세 인하 폭 100% 조정안에 대해서는 “인하 폭을 100%로 잡으면 사실상 관세를 정부에서 걷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유가안정대책팀이 지난 21일 현장을 찾아 정부가 제시한 유류세 인하폭 확대 정책보다 더 체감할 수 있는 유가 안정 대책을 입법하겠다고 자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민생우선실천단 유가안정대책팀이 지난 21일 서울 양천구 소재 주유소에 설치된 유가현황판을 바라보고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되기에 특위는 50%로 대표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류세 인하만으로는 오르는 물가를 잡기 힘들다고 보고 ‘정유사 초과이익환수’까지 언급했다. 야당은 고유가로 조단위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정유업체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

의 발언을 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내 4대 정유사(현대오일뱅크·GS칼텍스·에스오일·SK이노베이션)의 1분기 영업이익은 4조 7668억원에 달한다”며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정유사의 초과 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

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200원 이상 떨어뜨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민생 안정을 위한 정계의 공약은 현재 본격적인 논의조차도 어려운 처지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어떤 당이 맡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견해 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유사 ‘초과이익’에 대한 기금 출연에 산업계는 ‘당혹스럽다’는 모습이다. 특히 정유업체 관계자는 “고유가로 인한 산업계 전반의 고통과 서민 고통을 마치 정유사가 고유가의 주범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며 “겪어본 적 없는 어려움 속에 정유사만 호실적을 내고 있어 고통 분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해하지만, 휘발유·경유 값을 정유사가 정하는 것도 아닌데 난감할 지경”이라고 털어놨다.

산업계 전반에서 정치권의 민생 안정 공약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비단 정유업체의 일만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며 “기업이 높은 수익을 올리면 그 수익으로 기업의 빚을 갚고 신사업에 대한 구상을 그리는 일들을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정치권이 ‘초과이익환수’라는 카드를 들이밀면 어떤 기업이 한국에서 기업을 하고 싶을까”라고 비판했다.

물론 정유업체가 유례없는 실적을 이뤘던 것은 사실이다. 더군다나 싱가포르 복합 정제마진은 지난해 2분기 배럴당 2.1달러에서 올해 1분기 8.38달러로 치솟았다. 여기에 지난달 배럴당 20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에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2분기에도 1분기 못잖은 호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정유사들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맞은 적자액을 충당하고 탈탄소를 대비한 신사업 포트폴리오 마련에 “엔제 끝날지 모르는 상승세”라며 “다음”을 대비하고 있다.

국내 대표 정유사 4사는 코로나19가 세계를 강타한 2020년 당시 유가 급락과 마이너스(-)수준까지 떨어진 정제마진 때문에 연 5조원의 적자를 냈으며, 일부 정유사는 신용등급까지 한 단계 강등된 바 있다.

산업계는 “정치권이 구체적인 서민 경제 안정화에 대한 고민 없이 ‘고통 분담’이라는 주제로 자극적 메시지만 남발하고 있다”며 “에너지 수급 문제는 단순히 국내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에너지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탓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하고 기업이 지속 가능한 투자와 고용을 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지갑 닫은 중국인에 짐싸는 해외기업들

차이나 뉴스 & 리포트

이단 봉쇄에 소비 회복 기미 안보여 상반기 최대 쇼핑축제 매출 부진 유럽기업 23% “해외 이전 고려”

중국 소비자들이 상반기 최대 쇼핑축제에도 지갑을 닫았다. 이전 같았으면 판매실적 홍보에 열을 올렸을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침묵을 지켰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고수하면서 소비는 회복될 기미가 없고, 기업들 역시 중국 시장을 떠나겠다는 곳이 늘고 있다.

2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3대 전자상거래업체 가운데 징둥만 ‘618’ 쇼핑축제 기간 동안의 상품판매액(GMV)을 공개했다.

징둥의 618GMV는 3793억 위안으로 작년 대비 10.3% 증가했다. 늘긴 했지만 최근 4년 평균 증가폭이 30%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성장세가 크게 꺾였다.

중국의 경우 하반기에 11월 11일 광군제가 있다면 상반기에는 618 쇼핑축제가 있다. 6월 18은 전자상거래업체인 징둥의 창사일이다. 창사 기념일을 맞아 지난 2010년부터 할인 행사를 시작한 것이 이제는 중국 내 대부분의 유통업체가 참가하는 상반기 최대 쇼핑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온라인 시장조사기관인 신티(Syntun)에 따르면 618 기간 동안 전자상거래(라이브커머스 제외) GMV는 전년 대비 1% 증가에 그쳤다. 징둥이 공개한



중국 베이징에서 마스크를 쓴 보안요원들이 출입자들의 건강코드를 확인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AP·뉴스시

실적을 감안하면 알리바나 핀둬둬 등의 GMV 성장세도 과거 대비 부진했을 것으로 보인다.

맥쿼리 래리후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정기적인 대량 코로나검사와 봉쇄 조치 등으로 대표되는 제로코로나 정책은 생산이나 투자보다 소비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봉쇄에 따른 혼란은 일부 완화됐지만 상황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5월 소매판매는 전년 대비 6.7% 감소했다. 4월 -11.1%보다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하락세는 이어졌다.

핀포인트자산운용 장즈웨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엄격한 방역 정책으로 소비자와 기업 모두 심리가 매우 위축됐다”며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전체 경제가 잠재성장률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에 진출했던 해외 기업들은 철수를 고민 중이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가 반복되면서 방역 정책을 따르기 위한 비용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불어났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주중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가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유럽 기업의 23%가 현재 또는 계획 중인 투자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상하이 봉쇄 상태였던 지난 4월 말에 실시됐다. 2월 조사 당시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4분의 3 이상이 제로코로나 정책이 투자 대상으로서 중국의 매력력을 감소시켰다고 봤다.

/안삼미 기자 smahn1@

4.5개월 향해 후 달 착륙선 후보지 등 물색

>> 1면 ‘이제 발사체 넘어’서 계속

내년 2월부터 관측·탐색 등 수행

다누리는 순우리말인 ‘달’과 누리다의 ‘누리’를 합한 이름으로, 달을 남김 없이 모두 누리고 오기를 바라는 마음과 최초로 진행되는 달 탐사가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만들어졌다. 달 탐사선 다누리는 총 무게 678kg으로, 가로 1.82m, 세로 2.14m, 높이 2.19m 크기의 본체와 6개 탑재체로 구성돼 있다.

다누리는 발사 후 4.5개월이 걸려서 달 궤도에 도착하고 한달 가량 시운전을 진행한 후 탑재체의 초기 동작을 점검한 후 본체 기능 시험에 나서게 된다.

다누리는 달 착륙선의 착륙 후보지 물색 등 달과 우주를 탐사하는 임무를 맡는다.

내년 2월부터 정식 임무 수행에 나서는데, 달 상공 100km의 임무 궤도를 하루에 12번 공전하며 달을 관측하고 안테나를 통해 관측 데이터를 수신할 뿐 아니라 다누리호 달 착륙 후보지를 탐색하고 달의 자기장과 방사선을 관측하는 연구에 나서게 된다.

◆‘누리호’ 지상국과 양방향 교신 성공 정부는 이날 오전 3시 1분경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과의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김기석 우주기술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발사 당일 남극세종기지과 향우연 지상국 안테나를 통해 성능검증위성의 기본상태 정보를 수신한 데 이어

오늘 새벽에는 성능검증위성과 향우연 지상국 간의 양방향 교신이 이뤄짐으로써 누리호의 위성궤도 투입 성능은 완전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오늘 교신에서 원격명령이 처음 전달됐는데, 첫 번째는 위성시각과 지상시간을 상호 동기화하는 명령이며 두 번째로는 성능검증위성에 탑재된 GPS(위치정보시스템) 수신기를 활성화하는 명령이다”며 “향후 위성 자세 제어를 위해 필요한 궤도 정보도 지상국에서 성능검증위성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향우연 연구진이 성능검증위성 수신 상태에 대해 상세정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성능검증위성의 상태는 양호하며 모든 기능이 정상 작동됨을 확인했다”며 “성능검증위성은 향후 7일간의 위성 상태를 점검하게 되며 29일부터는 국내 대학이 개발한 큐브위성을 하나씩 사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9일에는 조선대 큐브위성이, 7월 1일에는 KAIST 큐브위성, 7월 3일에는 서울대 큐브위성, 7월 5일에는 연세대 큐브위성 사출이 예정돼 있다.

향후 성능검증위성과 향우연 지상국 간 교신을 통해 성능검증위성 발사 이후 자체 메모리에 저장하고 있는 초기 데이터와 GPS 데이터는 고속 전송모드(1Mbps)로 내려 받을 계획이다.

성능검증위성에는 전용 카메라가 탑재돼 있어 큐브위성의 사출과정을 촬영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영상데이터는 추후 지상국으로 전송하게 된다.

/채윤정 기자 echo@